함평 나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령IC 구간 광역 동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61) 320-7700

막내 투혼…"근성과 패기로 해내야죠"

메달 기대주 ⑭ 농구 최윤아·김정은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농구대표팀의 평균 나이는 28.7세다. 평균 나이가 30세가 넘는다는 여자 핸드볼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30세를 넘나드는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여자 농구는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부터 세대 교체를 통해 젊은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하려 했지만 성적이 좋지 못하자 다시 노장 선수들을 불러 들인 경우다.

그런 상황에서 20대 초반 두 명의 선수가 대표팀에서 중책을 맡아 농구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포인트 가드 최윤아(23·신한은행)와 포워드 김정은(21·신세계)이 주인공이다. 최윤아는 이미선(29·삼성생명)과 함께 포인트 가드 역할을 나눠 맡아야 하고 김정은은 박정은(31·삼성생명), 변연하(28·국민은행) 등 쟁쟁한 언니들이 막히면 전격 투입돼 활로를 뚫어야 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큰 대회 경험은 여느 선수 못지 않다. 둘 다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 지난 해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뛰며 대표팀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최윤아는 "중국에 가봐야 실감이 날 것 같다. 도착해서 선수촌에 들어가야 올림픽에 왔다는 기분이 들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김정은 역시 "원래 국제대회보다 국내 리그에 더 긴장하는 스타일"이라며 큰 배포를 자랑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4년 전 아테네올림픽 때는 TV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최윤아는 "그 때 프로 신인이었는데 TV 중계로만 봤다. 그나마도 중계를 잘 안 해줘 많이 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당시 최하위에 그친 대표팀의 명예 회복을 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리기 때문에 다들 힘들 때 근성과 패기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젊다 보니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대표팀 현실에도 별 불만이 없다.

최근 대표 선수들은 8강에 가기 위해 꺾어야 할 브라질, 라트비아, 벨로루시의 경기 동영상을 열심히 분석 중이다. 김정은은 "사실 처음에 라트비아, 벨로루시라는 나라와 한 조가 됐다고 하기에 생소한 나라들과 한 조가 돼 '8강엔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DVD를 보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각오를 새롭게 했다. 최윤아도 "경기 모습을 보니 더 긴장이 되고 마음 가짐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농구대표팀 포인트 가드 최윤아(오른쪽)와 포워드 김정은.

그러나 겁만 먹고 있을 선수들이 아니다. 나란히 "2000년 시드니에서 4강을 해냈던 언니들도 함께 있고 어차피 언니들이 주로 뛰는 만큼 부담이 없다"면서 한 번 일을 낼 태세다.

최윤아는 "어릴 때부터 올림픽에는 꼭 나가보고 싶었다. 올림픽 대표로 나가게 돼 자부심이 있다"면서 "요즘 큰 국제대회 때마다 다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곤 했는데 이번 만큼은 그런 일 없이 최고의 상태로 몸을 준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역시 "12명 올림픽 대표팀에 뽑혔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다. 또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쟁쟁한 선수들과 겨루게 돼 영광"이라며 "우선 8강 목표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 개회식 3대 관전 포인트

8월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베일에 가려있는 개회식의 핵심 요소들을 둘러싸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석간 베이징완바오(北京晩報)는 29일자에서 개회식 점화방식, 성화 최종주자, 식전 행사 내용, 주제가를 부를 가수 등을 4대 관전 포인트로 지목하며 난무하는 세간의 '설'들을 전했다.

① 성화최종주자

농구스타 야오밍 거론

◇성화 최종주자는 누구 = 일단 아테네 올림픽 110m 허들 우승자인 류시앙과 미국 프로농구(NBA)의 기대주 이젠롄, '중국탁구의 마녀' 덩야핑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이번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이미 참여했기 때문에 규정상 최종주자가 될 수 없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세계 정상급 센터 야오밍을 유력 후보의 하나로 거론했다. 특히 그가 아테네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성화봉송을 할때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아울러 '복병'으로 연습 중의 사고로 인한 하반신 불수 장애를 불굴의 투지로 극복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 여자체조선수 상란과 1984년 중국에 첫 하계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사격영웅 쉬하이펑 등을 꼽기도 했다.

② 성화점화방식

봉황 또는 용 불 뿜어

◇성화 점화 방식 = 신문은 개회식 마지막에 공개될 성화 점화 방식을 최대의 관심사로 꼽았다. 이달 6일 점화방식이 최종 확정됐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다(天人合一)'는 테마로 진행되는 점화 행사와 관련,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식은 '전설의 새' 봉황이 불을 뿜는 형태다. '봉황이 둥지로 돌아오다(鳳還巢)'로 불리는 이 방식은 근대사의 오욕을 경험한 중국의 새 도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새 둥지 모양의 올림픽주경기장 이미지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또 하나의 후보는 9마리 용이 날아올라 화염을 뿜는 방식이다. '아홉마리 용이 비상하다(九龍騰飛)'로 불리는 이 방식은 '아홉 구(九)'자와 '용 용(龍)'자가 축적된 중국 문명의 깊이를 내포하는 글자라는 점에서 각광을 받는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③ 식전공연 내용

세계 시선 끄는 '걸작'

◇장이머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 세계 각종 영화제 그랑프리를 석권하다시피한 명장 장이머우(張藝謀)가 1시간 가량 진행될 개회식 식전 공연에서 무엇을 보여줄지도 관심거리다.

장감독이 연출하는 식전행사가 중국 문명이 꽃을 피웠던 한·당(漢唐)시대를 배경으로 할 것이란 예상에서부터 '병마용'으로 세계에 깊이 각인된 진(秦)시대를 배경삼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신문은 장 감독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향

박성화호 마지막 '모의고사'

올림픽 이탈리아전 대비…오늘 호주와 평가전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에서 사상 첫 메달을 노리는 올림픽대표팀이 본선 무대에서 만날 이탈리아의 가상 상대 호주를 상대로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른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31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질 호주와 평가전을 앞두고 '압박 탈출과 빠른 공수전환'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삼았다.

박 감독은 "호주와 평가전은 이탈리아를 가상해서 우리의 전술을 마지막으로 시험해보는 기회"라며 "체력은 물론 압박이 뛰어나고 섬세한 플레이를 펼치는 이탈리아를 꺾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전 마지막 상대인 호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6회 연속 본선 무대에 나서는 강호로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때 준결승까지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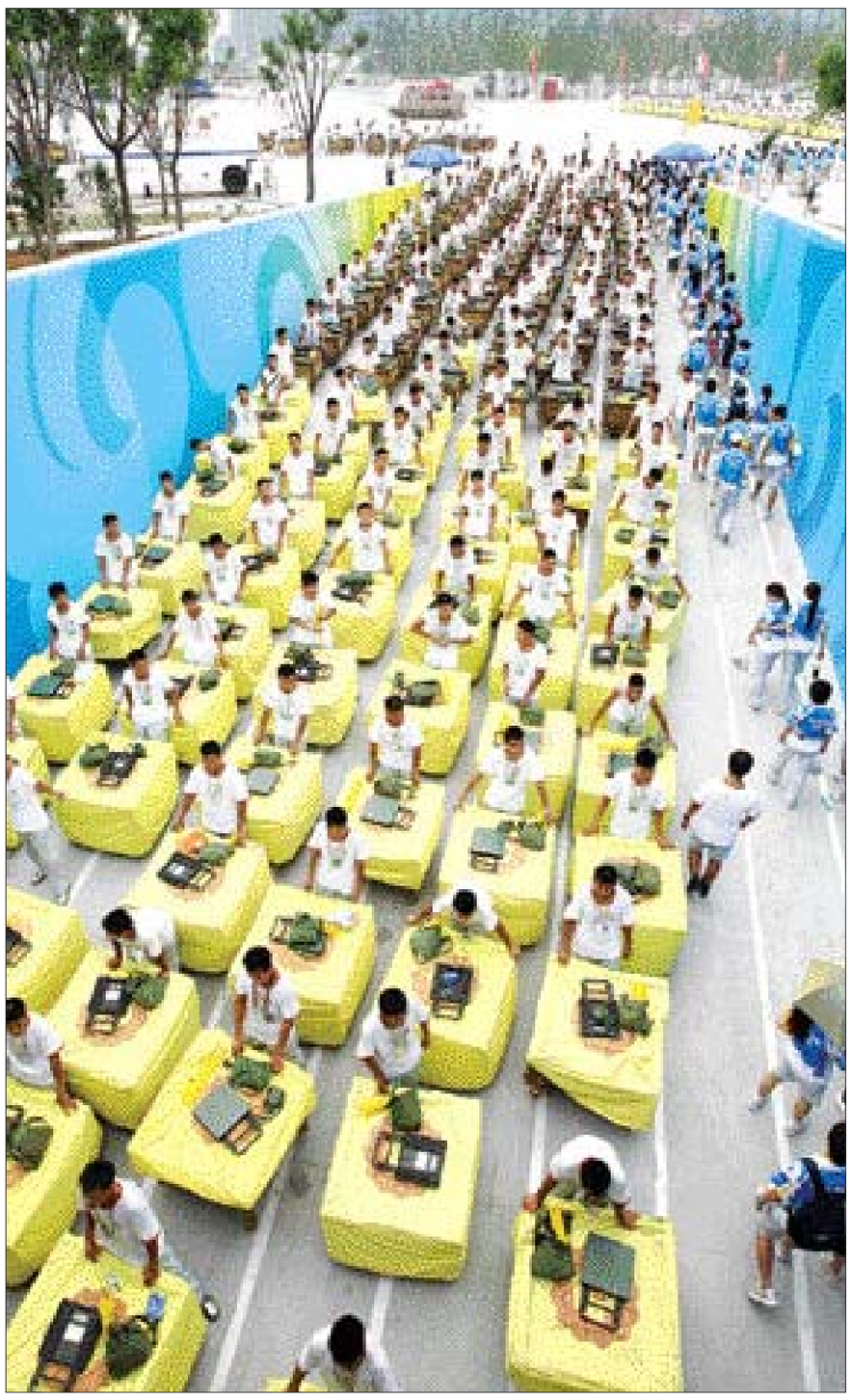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코트디부아르, 아르헨티나, 세르비아와 함께 A조에 속해 있고, 예선에서 6승5무1패(18골5실)의 좋은 성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개최국)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해 본선에 진출했다.

호주전을 앞둔 박성화호는 갑작스레 밀어닥친 선수들의 '부상 폭풍'으로 조심스럽게 평가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코트디부아르 평가전에서 주전 공격수 김승용(광주)이 갈비뼈를 다쳤고, 29일 훈련에선 골잡이 이근호(대구)와 오장은(울산)이 서로 부딪히면서 눈 주변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둘 모두 10바늘 이상 꿰매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박 감독은 부상 중인 선수를 무리하게 뛰게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코트디부아르전에 나섰던 정예멤버에서 2~3명 정도만 바꿔 경기를 치를 작정이다.

이에 따라 4-4-2 전술에서 투톱은 신영록(수원)과 박주영(서울)이 나서는 가운데 왼쪽 미드필더에는 김승용을 대신해 백지훈(수원)이 배치되고, 오른쪽 날개에는 이청용(서울)이 포진한다.


개막식 리허설 군인 '인해전술'? 2008베이징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30일 올림픽 주경기장인 궈타지위창에서 열린 개막식 리허설에 참가하는 수천명의 중국 군인들이 각자의 북을 밀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소식

이신바예바 또 세계新…올림픽 2연패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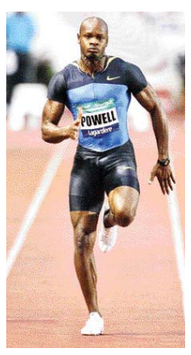
女장대높이뛰기 5m4 기록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26·러시아·사진)가 베이징올림 개막을 앞두고 연일 여자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신바예바는 30일 모나코에서 열린 슈퍼그랑프리 육상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 5m4를 뛰어 12일 이탈리아 로마 골든리그 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기록(5m3)을 1㎝ 높였다.

이신바예바는 3차 시기에 5m4를 뛰어넘었다. 2005년 '마의 5m 벽'을 돌파한 이신바예바는 이후 3년간 기록 행진이 주춤했지만 12일에 이어 18일 만에 새 기록을 세우며 올림픽 2연패와 세계신기록 수립을 예고했다.

파월 육상 100m 3개대회 연속 금



○… 자메이카 스프린터 아사파 파월(26·사진)이 남자 육상 100m에서 3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파월은 30일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슈퍼그랑프리대회 100m 결승에서 9초82를 찍어 다비스 패튼(미국·9초98)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불꽃놀이 주역은 예포부대

○… 9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놀이의 숨은 주인공은 무장경찰 베이징총본부 예포부대다.

상하이의 TV 방송 둥방웨이스(東方衛視)의 보도에 따르면 예포부대는 남쪽 융딩먼(永定門)에서 톈안먼(天安門) 광장을 거쳐 냐오차오까지 수십㎞의 남북간의 29곳에 설치된 진지에서 대포와 비슷한 발사기로 폭죽을 발사한다. 이날 밤에만 3만발의 폭죽이 발사될 계획이다.

예산 등 규모면에서 벌써 신기록

○…중국 베이징 올림픽은 개회식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그 규모면에서 많은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미국의 정치외교잡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베이징 올림픽은 예산,성화봉송,언론보도, 자원봉사자, 보안경비 등 5가지 측면에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베이징 올림픽의 총예산은 역대 올림픽 중 최대 규모인 400억 달러다. 이는 2004년 그리스의 아테네 올림픽 예산보다 약 2.5배 많은 액수다.

중국은 모두 350억 달러를 들여 교통수단 확충에 힘쓴다. 새로운 도로와 버스노선 34개, 지하철 5개 노선을 추가 개통하며,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세계 최대의 폐쇄공간'이라고 표현한 약 130만㎡ 규모의 터미널이 신설된다.

이 외에 '새둥지'라고 불리는 주경기장 궈자티위창(國家體育場) 등 경기장 건설 및 보수에 18억 달러, 대회 운영에 20억 달러가 소요된다.

성화봉송도 13만7천km로 사상 최장거리를 달렸다. 올림픽이 열리는 17일 동안 40억 명이 모든 경기를 고화질(HD)TV로 시청하는 등 언론 중계도 기록을 세운다.